



[종합] 세계 사장들의 신년사 05·06·08·09·10·11·12



Economy

코스피	2479.65 (+12.16)	코스닥	812.45 (+14.03)
금리 (미국 3년)	2.12 (-0.02)	환율 (원/달러)	1061.20 (-9.30) (2일)

두 자릿수 청년실업률, '학력과잉'이 빛은 비극

기업&일자리가 희망이다

② 청년이 희망이다

大·中企 일자리미스매치 등 구직난은 복합적 사회문제

부처 합동 일자리대책회의 본격적 취업 초강수 통할까

'두 자릿수에 육박하는 청년실업률을 줄여라.'

대한민국이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의 일자리를 '무술년(戊戌年)' 새해에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해 11월 기준 15~29세 청년실업률은 9.2%로 1년 전인 2016년 11월 당시의 8.2%보다 1% 포인트(p)나 증가했다. 특히 고교 졸업, 대학 졸업 후 한창 일할 때인 20~29세 청년실업률은 9.4%까지 상승했다. <관련기사 3면>

반면 50~59세 장년실업률은 1.6%에 그쳤다. 한창된 일자리를 놓고 자식 세대와 부모 세대간 갈등도 전개되는 양상이다.

2일 청와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가칭) '청년일자리 대책회의'를 별도로 만들어 본격적으로 청년 취업 대책 마련에 나선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출범 이후 청년 구직수당 신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확대, 공무원 등 공공부문 대규모 확충 등의 정책을 통해 청년 취업을 위한 '마중물' 붓기에 집중했다. 지난해 대책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돼 본격 실행 단계에 접어든다.

올해부터 부처 합동으로 청년 일자리 대책회의를 따로 만들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책회의는 비상설로 열되, 기존에 나왔던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꾸러질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고민도 적지 않다. 그동안 정권을 넘나들며 수많은 청년 고용 대책이 쏟아졌지만 청년 실업률은 전체 평균 실업률(3% 수준대)을 훌쩍 웃돌며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나 관련 정책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이유는 상당



'필승!' 무술년 첫해 해군·해경 입영식

2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 해군 교육사령부 연병장에서 열린 무술년 첫 '해군병 646기 및 해경 386기 입영식'에서 입영장병들이 거수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히 복잡적이다. '학력 과잉'이 대표적이다. 고졸자의 상당수가 대학을 가는 현실에서 취업 눈높이는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전체 일자리 가운데 대기업이 약 12%, 중소기업은 88% 가량을 차지하고 현실에서 일자리가 많은 중소기업보다 대부분이 대기업 취업에 '몰인'하고 있는 모습이 다. <2면에 계속>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애플, 차기 아이폰X용 두뇌 양산

국내 검사장비 부품업체서 AP점검용 소켓 대량 주문



품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소모품이다.

애플이 차기 아이폰X 시리즈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흥행 여부는 미지수다. 최근 불거진 배터리 게이트 때문이다. 애플은 리튬이온 배터리 성능 저하를 이유로 구형 아이폰 성능을 제한하는 iOS 업데이트를 사용자 동의 없이 단행한 것이 적발돼 세계 각지에서 소송을 당하는 상황이다. 애플은 이러한 사실을 공식 인정, 사과했지만 미국, 이스라엘, 한국, 일본, 호주 등의 국가에서 150건 이상의 소송이 접수 또는 준비 중이다.

최근 '배터리 게이트'로 곤욕을 당하고 있는 애플이 차기 아이폰X에 사용할 두뇌 양산에 들어갔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국내 반도체 검사장비 부품업체에 스마트폰의 두뇌격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점검용 소켓을 대량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9월께 출시 예정인 아이폰Xs와 아이폰X 플러스에 사용할 'A12' 프로세서 개발을 마치고 양산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애플이 국내 업체에 주문한 AP 검사장비는 약 3만대로 추산된다. 이 검사장비는 생산한 AP가 정상 작동하는지 전기 신호를 확인하는데 사용된다. 실리콘 러버(Rubber) 재질이어서 반도체에 손상을 입히지 않지만, 하나의 제

주문 시기를 감안할 때 애플의 이번 주문은 차기 아이폰X(텐)에 사용된 A12 프로세서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애플은 올 9월 아이폰X과 동일한 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후속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다. 5.8인치 아이폰Xs와 6.4인치 아이폰X 플러스 모델이 그것.

A12 프로세서는 대만의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파운드리) TSMC에서 생산한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는 애플에 AP를 공급하기 위해 250억 달러(약 28조원)를 투자했다. 덕분에 아이폰 7부터 아이폰용 AP를 전량 공급하고 있다. TSMC는 아이폰Xs와 아이폰X 플러스에 들어가는 A12 프로세서에 7나노 공정을 적용할 전망이다.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신형 아이폰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품수를 쓴 것 아니냐는 소비자들의 반발에 애플은 배터리 교체 비용을 기존 79달러에서 29달러로 할인 해주겠다는 보상안도 공개했다. 그러나 세계 스마트폰 시장 영업 이익의 60%를 차지하는 회사가 보상안으로 배터리 판매를 내세웠다는 점에서 소비자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오세성 기자 sesung@

원·달러 환율 1061.2원, 3년2개월 만에 최저

올해 외환시장 첫 개장일인 2일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3년 2개월 만에 최저치(원화값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원화 강세 현상이 이어졌다. <관련기사 4면>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원화 강세 흐름 속 국내 경기 회복세와 글로벌 달러 약세 현상이 더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

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9.3원 급락한 1061.2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2014년 10월 30일 1055.5원 이후 3년 2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시장에선 이날 외국인의 국내 증시 매수가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했다. 외국인은 이날 코스피시장에서 1326억 원, 코스닥 878억원을 각각 순매

수했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12.16포인트(0.49%) 오른 2479.65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4.03포인트(1.76%) 오른 812.45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가 800선을 넘는 것은 2007년 11월 6일 이후 10여 년 만이다.

/이봉준 기자 bj35sea@

2018년 새해 '행복' 많이 만드세요

행복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갈 때 더욱 커지는 것이기에
올해도 SK는 우리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